

EAACI annual meeting을 다녀와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서동인

6월 4일, 런던 히드로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설레임과 불안함으로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처음으로 가보는 유럽학회이기에 또한 처음으로 구연 발표를 하게 되었기에 그랬다. 미리 준비한 발표 스크립트를 한번 더 읽어보다가 문득, 기왕 이렇게 된거, 부담을 안은 김에 차라리 어느 정도 즐기어 보자는 생각을 했다. 일찍 취직을 하고 승진하여 안정된 직장에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친구들과 달리 의학도로서 오랜 교육기간이 요구되는, 늘 새로운 위치에서 새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 불안정한 상태는 늘 스트레스였다. 학생 때와 전공의 때가 달랐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때와 전임의가 된 이후가 달랐다. 매번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약간의 두근거림이 동반된 특권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례로 논문에서 눈에 익혀둔 친숙한 이름들을 직접 대면 한다는 것은, 비록 십대들이 아이돌과 악수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해외학회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 중 어느덧 비행기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고, 런던 하늘은 쾌청했으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며, 창 밖으로 보이는 템즈강과 연이어 들어선 역사 유물들을 감상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한 식사와 가벼운 맥주 한 잔을 즐긴 후 시차에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감으며 잠을 청했다. 이렇게 나의 학회 참관은 시작되었다.



런던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학회장은 Victoria Dock 근처에 위치했는데 규모가 컸지만 다소 한산했다. Dockland Light Railway 정거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학회장 주변이 주택가여서 그런지 학회 참석차 방문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다. “야키” 부스 -그곳 사람들은 EAACI를 그렇게 불렀다-에서 초록집을 교환하고 학회장 구석구석을 답사한 후 주린 배를 채우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 Postgraduate course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미국 알레르기 임상면역 학회에 이은 두 번째 국제학회 참관이었기에 자연스레 이 둘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또한 학회참관의 즐거움이었다. Second language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의 영어에 관대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스케줄이 빠곡하여 머리와 배 중 어느 쪽 굶주림을 채울 것이냐로 고민했던 이전 학회와 달리, 먹을 땐 먹고, 인사도 서로 나누고, 공부할 땐 다시 집중해 공부하자는 분위기였다. 대강의실에서는 천식에서 상피세포의 barrier function에 대해 Dr. Stephen Holgate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소강의실에서 Dr. Haans Bisgaard로부터 바이러스 감염 후 소아천식으로의 진행에 있어 항류코트리엔제의 유용성에 대한 코호트 결과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대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오전 강의가 10시 반까지 있는 경우 10시 29분까지는 커피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가 30분 정각에 open을 한다던가, 이메일 확인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컴퓨터 옆에 서 있는 직원으로부터 일일히 EAACI member인지 확인 받아야 했던 점 그리고 Wifi를 아주 좁은 구역 한군데서만 개방하여 그 근처에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을 든 비유럽권 사람들이 고개를 맞대고 서있던 점 등이 아쉬웠다. Meet the expert에서 새벽부터 지하철을 타고 나와 강의실로 향했지만, 봉지에 든 딱딱한 빵 한 조각과 tea-bag이 담긴 종이컵 하나를 들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강의를 들은 것은 소그룹 모임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다소 성의가 부족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었다.

한편 아주 긍정적이었던 점도 있었다. EAACI에도 JMA라 하여 만 35세 미만의 Junior members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FIT와 유사한 형태의 모임이 있는데, 학회 내에서 이들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Postgraduate course부터 소강의실 강의, poster section 그리고 초록구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들의 모습은 항상 활력에 넘쳤고, 밝은 미래를 엿보이게 했다.

해가 길고 대중 교통이 잘 발달된 시내에 좋은 관광지가 많아서, 초반에 구입한 오이스터카드 한 장으로 학회기간 짬짬이 주변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자오선에 서서 템즈강을 바라보았는데, 무수한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고, 피카디리 서커스의 에로스 동상 아래 잠시 짐을 놓고 쉬면서는 무수한 여행객들과 극장 및 상점 주변으

로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날 낮에는 대영박물관을 가볍게 둘러보고 세인트폴 성당 둑에 올라 런던시 전체를 둘러보았는데, 외국여행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중심에 시간이 멈춰진 채 서있는 기분이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라는 고속 공항철도에 올라 이십 분만에 다다른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세관을 지나니 오랜 여행의 피로가 엄습했다.

벌써 한달 반이 지난 지금이지만, 참관기를 쓰며 생각해보니 유럽임상면역학회 참관은 참 기분 좋은 자극이었다. 그때의 초심을 다시 잊지 말고 또 열심히 배우고, 고민하고, 또 변화를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듈다.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본다.